

존경하는 교장선생님

오랜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를 반길 틈도 없이 떨어지는 낙엽들은 어느새 한해를 마무리 할 때임을 알려줍니다. 학교 현장은 한 톨의 곡식도 소중히 여기는 농부의 마음으로 바쁜 일정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섯 번째 편지를 올립니다.

그간 교장선생님께서 애써주셔서 금년도 현재 자살학생은 84명으로 예년보다 많이 감소되어 올해 두 자릿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는 오로지 학생들을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오신 교장선생님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며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

지난 수능당일 고교 졸업생이 시험을 잘 보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안타까운 일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. 이렇듯 11월과 12월에는 수능관련 학생 사고가 우려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. 실제로 작년 이맘쯤 자살학생 19명 중 16명이 고등학생이었고, 올해 11월 들어 자살한 학생 2명도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.

존경하는 교장선생님!

학생들은 아직 자기 통제력과 조절능력이 성숙하지 못해 시험결과에 대한 압박감이나 진로에 대한 갈등으로 힘겨워하다가 급기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 있습니다.

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12년 학창 시절 동안 입시라는 관문 통과를 위해 쉴 새 없이 질주해 왔다고 하겠습니다. 따라서 시험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혼자서 이를 감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.

따라서 학생들을 배려하고 보살펴 주려는 학교와 가정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. 질책에 앞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중한 때입니다. ‘그동안 수고했다, 많이 힘들었지?, 괜찮아’ 등의 위로와 함께 따뜻하게 포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

긴 인생에서 수능은 끝이 아닌 삶의 여정 중 하나일 뿐이며 앞으로 무궁무진한 다양한 길이 열려 있음을 일러주고, 절망보다는 희망을, 불안감 보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다시 한 번 교장선생님의 교육사랑에 감사드리오며 다가오는 丙申年 새해에도 교장선생님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

2015. 11. 19.

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**황 우 여**

황 우 여